성가정 축일 강론(2019년 12월 29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며칠 전 우리는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는 진짜였고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구원 이야기였습니다. 성탄이라는 사건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과 축복을 실감하고 느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가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잘 웃지도 않고, 표정이 별로 없어요. 좀 웃으세요. 얼굴에 미소도 좀 띄시고... 기쁘면 기쁜 척 좀 하시고, 행복하면 행복한 척 좀 하시기 바랍니다. 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잘 나야 하고, 마음대로 안되는 일도 많고,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웃고, 기뻐하기 보다는 늘 심각하게 인상쓰고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가만히 보면, 생각따로, 마음따로 입니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하늘에서만 빛나시고, 땅에서는 제 이름이 좀 빛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시고, 땅에서는 제 뜻대로 좀 이루어지게 하소서”하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제 이웃들 보다는 저에게만 더 많이 주시고, 남의 죄를 저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저의 죄는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유혹에는 빠지게 하시되, 악에서는 항상 구해 주소서”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올 2019년도 내일과 모레, 단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 보면, 세월 다 지나갑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자꾸 웃고 살다 보면 복이 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직접 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찡그리고 인상 쓰는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훨씬 더 이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굴에 늘 미소를 띈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상 쓰고 찡그리고, 심각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보다 많이 웃고 삽시다. 웃으면 진짜 복이 옵니다. 내년에는 시험삼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늘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많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성탄 대축일 후에 오는 첫번째 주일에 지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모든 가정의 모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죠.

오늘 성가정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성장한 어른의 모습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로 한 가정에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이 가정 안에서, 매일 매일, 하루 하루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증거입니다.

사람인척, 사람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느님은 충실하고 믿음이 좋은 인간의 한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 가정에서 자신의 외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작년 성지 순례때 나자렛의 그 작은 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작은 시골 동네의 조그마한 집이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곳이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삼십년을 이 작은 집에서 사셨구나.”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집에서 예수님은 30년을 평범하게 사시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성가정은 언제나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가정은 다른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가정은 시작부터 엄청난 위기에 봉착합니다. 엄마는 처녀였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얘기로 하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었죠. 그리고 온갖 위협과 박해를 피해서 먼 이국 땅 이집트로 피난 가서 살았습니다.

나자렛에서 이집트까지 수천 마일이 되는 사막 땅입니다. 그 당시 거기를 거의 걸어서 갔을텐데, 수 개월에 걸쳐 갔을거고, 가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거지처럼, 때로는 구걸도 하고, 노숙한 날도 많았을 겁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어서 늘 궁색하게 지냈을테죠.

집안도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은, 출생부터 미스테리였고, 신비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합니다. 하라는 일도 잘 안하고, 하라는 공부도 안하고, 늘 밖으로 쏘다니기만 하고,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고, 속 상당히 썩이는 자식이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부모 자식 인연 끊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가정은 언제나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와 겸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알수 없는 계획에 불평 하나 없이 늘 순명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경우라면 어떠했을까요? 힘들고 답답해서 때려쳐도 아마 진작에 때려 쳤을 겁니다.

늘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 친절과 겸손,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내며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성장해 갑니다. 이 성가정 안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자신의 사명을 서서히 준비해 나간 겁니다.

가정은 하나 하나가 하느님의 거룩한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넘어졌을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나자렛의 성가정을 거울삼아,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감당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 손 붙잡고 기도 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면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웬수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지금, 나자렛의 그 작은 성가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일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느님께서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메세지입니다. ‘행복한 성가정’ 이루세요!